

2012년 4월 12일 목요일 제1414호

☕ 차한잔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긍정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등은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제 가격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제도여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실적공사비 개선 등 제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원·하도급 업체는 동반자 관계
표준하도급계약 잘 활용하면
불공정거래 크게 줄어든 것

:

전문업체는 시공기술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 기울여야

:

SOC 예산 축소지향적 움직임
녹색물산업·신재생에너지 등
새 먹줄거리 발굴 적극 나서야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원·하도급 간 갈등은 있지만 협력할 부분도 많다”며 “공사비 협박, 자기공사 등은 물론, 전문업체 모두의 문제”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최근 공동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실적공사비, 표준공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 원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시급히 고쳐야 하며, 특히 품질을 개선하고 실적공사비에 반영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1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면 원·하도급 관계의 문제도 크게 나아질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현행 적격심사나찰제도 역시 나열하듯 상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하도급 관계는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동반자 관계로 봐야 합니다. 전문업체를 단순히 생산요소나 값을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반성장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

자는 아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할 시 가장 좋은 인센티브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만 제대로 활용되더라도 원·하도급사 간 불공정 거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 노 원장은 시공기술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등 경쟁력 강화에 더 나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현장여건이 더욱 복잡해지고 인력난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업체들은 시공능력과 양적별 특성에 따라 노무·장비·재료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시공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과 지원책도 병행되면 좋겠다.”

노 원장은 건설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 예산이 보편적 복지에 밀려 축소지향적으로 움직이고, 부동산 시장 역시 앞으로 크게 활기를 띠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건설산업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미래의 먹줄거리로 삼

아야 합니다.”

노 원장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테마로 녹색건설, 물산업 등을 꼽았다.

“저물시대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모두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규모 하수관거 설치하는 물론 지하하천 건설도 검토할 시기입니다. 태국의 경우 태널을 통해 평소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집중호우 때에는 불어난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천 등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악화에 대응하면서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문업체들도 업종별로 녹색건설이나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설IT 등의 요소기술을 선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해외진출지원센터 등의 지원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설립 8주년을 맞는다.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매년 20여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문업체의 한계에 대한 해법과 장기적 관점의 경쟁 정책방향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전문건설업 시장 확대, 하도급 거래 정상화, 건설시장 율동성 제고, 초고층법제도, 자원정책연구 등을 중점과제

로 추진을 계획한다.

오는 6월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년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5년은 도약기가 될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에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 관련분야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현재 박덕홍 전문건설협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노필기자 royle@

노재화 원장은

- 1978년 기술고시 합격(14회)
- 1979년 서울대 농공학과 졸업
- 1994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박사
- 2005~2010년 국토해양부 환경총무정책소장
- 2010~2011년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2011년 8월~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